

가장 순수하고 고귀한 공양물만을 만드는 곳

농인당
 본사 0293663-6777
 www.ninwang.com
 팩션 02730-6888(이차·우편)

침향복장물
침향염주
침향선향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택 불교 031)792-6288 / 794-4055

창간 16주년 특별기획-세대공감, 다름이 에너지다

세대주기 짧아지고 다양화

90년대 X세대... 최근 V·Na세대 등장

'X세대' 1990년대 당시 신세대를 일컫던 용어다. 2000년대 들어서는 Y세대, 2010년대에는 V세대가 등장했다.

Y세대는 2차대전 후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2세대를 일컫는다.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이들로 다른 나라 문화·인종에 대한 거부감도 적다. 말을 배우기도 전에 TV에 익숙한 이들은 모방심리, 호기심, 패션에 관한 관심이 매우 크다. V세대는 용감하고(valiant), 다양하고(various), 생기발랄(vivid)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들은 개성 있고 자신감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세대는 또래 집단의 성향, 집단지성을 의미한다. 대개 한 세대는 10~30년 단위로 구분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터넷과 핸드폰 등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로 발전되면서 세대간 주기는 좁혀지고 구분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급기야 1년

을 주기로 새로운 세대가 나오기도 한다.

장년층 이상에서는 38세대와 4·19세대를 빼놓을 수 없다. 4·19세대는 4·19혁명을 겪은 세대이다. 38세대란 숫자의 조합으로 1990년대 당시 30대 나이이고 1980년대 대학 학번을 갖고 있는 196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1980년대에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전념해온 그 또래 집단의 정신이나 삶의 태도를 가리킨다.

세대 구분은 기업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광고 등에서 주로 볼 수 있는 N세대가 그 예이다. N세대는 네트워크를 자기 감각·운동 기관으로써 쓸 줄 아는 세대이다.

월드컵을 계기로 공동의 문화와 즐거움을 위해 문치고 노력했던 W세대,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사회 패

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P세대 등을 지나, 최근에는 디지털 노마드 세대와 Na세대가 떠오르고 있다.

이동과 스피드를 특징으로 한 디지털 노마드(Nomad) 세대는 디지털 유목민이라는 뜻을 갖는다. 이들은 첨단디지털 장비를 갖추고 여기저기 이동하며 일하는 사람들이다.

Na세대는 내가 주인공인 이들로 '호모 루덴스(homo ludens: 노는 인간)'를 뜻한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이들은 '나는 접속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대변되기도 한다.

하늘에서 구름이 피어나듯 지금이 순간에도 인간 개개인의 본성은 무리지어 공업(共業)을 이루며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자타불이(自他不二)라 했다. 다른 세대를 이해하고 헤아리는 것이 '참나'를 찾는 또 다른 길이 아닐까?

조동섭 기자 celana@buddhapia.com



힘모아 마음모아 영차 영차 국제포교사회(회장 박성필)는 10월 10일 제2회 2010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 체육대회를 선화예술고등학교에서 개최했다. 네팔, 방글라데시,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등 8개국 이주민 노동자 500여 명을 초청해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이주민들이 줄다리기 결승에서 힘을 다해 줄을 당기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1819 선지식 지묵 스님

순행이 오면 오는 대로 역행이 오면 오는 대로 거스르지 말고 그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잘 나간다고 오만하지 말고 잘못 나간다고 위축되지 말고...



1819 선지식 지묵 스님

순행이 오면 오는 대로 역행이 오면 오는 대로 거스르지 말고 그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잘 나간다고 오만하지 말고 잘못 나간다고 위축되지 말고...

붕해 스님 입적

일불선교종 4대 종정... 호불사서 종단장

(재)대한불교일불선교종(총무원장 화엄) 제4대 종정 붕해 스님이 10월 11일 입적했다. 세수 80세, 법랍 54세. 붕해 스님은 인천 용운사에서 용운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고, 일생을 대중포교와 후학양성에 매진해 왔다. 1975년 세계범왕 일불종자로부터 건당 받은 스님은 1997년 종정으로 추대됐으며 2005년 제4세 종정으로 재추대됐다. 스님의 장례는 인천 호불사에서 일불선교종 종단장으로 봉행됐다. (032)833-4488 노덕현 기자

세대공감을 위한 제언 공통 경험의 폭을 넓혀라

10월 4일 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공개된 '지하철 난투극'이란 제목의 동영상은 우리사회의 세대 간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자연스럽게 벌어져 뜨거운 논쟁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10대 여학생보다 할머니를 비난하는 댓글도 상당히 많아 세대 간 갈등이 우리사회의 또 다른 북마전임이 드러내 주었다. 세대간 갈등은 문화영역 전반에서 첨예하게 표출된다.

세대 간에는 정치적 이념갈등도 발생하지만 동시에 세대교체와 같은 실제적인 권력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이른바 '88만원세대'로 상징된 바 있듯이 세대 간에는 일자리 혹은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경제적 이해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계층갈등이나 지역갈등 만큼 흔하게 세대갈등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세대갈등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3대 사회갈등현상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다.

1990년대 이후부터 우리사회에서는 세대 간 갈등현상이 현저하게 등장하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세대갈등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일상적 풍경임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세대 간 공감대를 확대함으로써 세대차로 인한 사회갈등을 좁히려는 목적의식적인 노력도 긴요함을 의미한다.

어쩌면 감각과 욕 사이의 '공정한 사회'라는 추상적인 정치적 구호를 통한 사회통합 이전에 혹은 그것의 제도화를 위해서라도, 가정, 직장, 지하철, 공원과 같은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구체적 인간관계 속에서 세대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젊은 세대의 젊은 세대 간의 유대는 매우 중요한다. 이러한 유대는 우리사회의 정치적 보수층과 진보층 사이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동시에 사회 그 자체의 점진적인 변화와 연속성을 보장해 준다.

그렇다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세대 간 공감대를 확장해 나가기 위

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대 간 공감대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특히 세대 간 격차가 큰 젊은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서 공통 경험의 폭을 넓혀야 한다. 그리고 세대 간 공통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는 삶의 경험이 풍부한 젊은 세대들로부터 전통을 배워야 하는 반면에 나이 많은 구세대는 신세대들이 보다 풍부한 삶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회를 대폭 위임해 주어야 한다. 젊은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존경과 기회가 교환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하여 기력이 쇠약하여 소대 변을 가지지 못하는 젊은 노모의 젖은 바지를 빨고 있는 50대의 실직 아들이 왜 뜨거운 눈물을 쏟아 내는지를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제2의 지하철 난투극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창간 16주년 기획-세대공감, 다름이 에너지다..... 12~17면

12 10대 13 20대 14 30대 15 40대 16 50대 17 60대

아! 나로부터 벗어나는 행복자유 평화

단기출가, 삼매체집중 4박5일 단식·참선

몸에 배어버린 관행, 체질전환 단기출가로 해결해보십시오

·인생 대전환·

아기손 불잡야 일으키듯, 다가가는 간화선체험

국민단식의상상초월효과 · **단일워트 3kg 요요현상제로**

물만 마시고도 고혈압 당뇨병 성인병 난치병을 퇴치 ·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면역성 노화방지 해독 아토피 피부 미용 여드름 생리안정 금연 금주

10월 8일~12일, 11월 12~14일,매일 단기출가 30일 50일 100일

청소년 대학생 일반

일찍부터 참선에 뜻을 두고 시도했으나 어려움에 부딪혀 좌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참선을 하지 않고는 불교를 한다고 할 수 없다! 라는 말을 들어왔으나

'어렵다! 근기가 낫다!' 라 하여 임무도 못내 섰다면 이제 시작해 보십시오.

제1회 참선대중화 선회에 초대합니다.

시원한 담을 드리겠습니다.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활인선원 원명선원 ☎1644-5266 **네이버카페 활인선원**

2010 한·마음·아버지·마당

나로부터 시작하는 "가족의 행복"

수강생 모집

대상 | 아버지면 누구나 | 인원 | 선착순 40명(선착순 마감)

일정 | 2010년 11월 13일(토)~12월 18일(토) | 수강료 | 10만원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3시 / | 마감 | 2010년 10월 31일(일)

1주차와 6주차는 오전 10시 ~ 오후 3시까지 | 문의 | 한마음과학원 031-471-6926-7

※ 자세한 참가방법 및 절차는 www.hansi.org에서 확인

대한불교한마음과학원

財團法人 大韓佛敎 一鵬禪敎宗

第4世 宗正 慧松堂 鵬海 大宗師 宗團葬 奉行에 대한 人事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10월 11일 열반하신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제4세 종정 혜송당 붕해 대종사의 종단장을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먼길에 직접 찾아와 주신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제방의 큰스님들 정부인사 및 사회각계 각층 인사들, 그리고 사부대중께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또한 조화·조전등으로 조의를 표해주신 각계 인사 여러분께도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 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올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널리 헤랑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불기 2554년 10월 15일

☐ **慧松堂 鵬海 大宗師 追慕祭 日程**

구분	일시	구분	일시	장소
초재	불기 2554년 10월 17일 (음 9. 10)	5재	불기 2554년 11월 14일 (음 10. 9)	호 불 사
2재	불기 2554년 10월 24일 (음 9. 17)	6재	불기 2554년 11월 21일 (음 10. 16)	
3재	불기 2554년 10월 31일 (음 9. 24)	회향	불기 2554년 11월 28일 (음 10. 23)	
4재	불기 2554년 11월 7일 (음 10. 2)			

☐ 문의 : 총무원 ☎ 02)998-8161~2 / 호불사 ☎ 032)833-8175

(財)大韓佛敎 一鵬禪敎宗 宗正 慧松堂 鵬海 大宗師 宗團葬 葬儀委員會